

인쇄하기

광주드림

인쇄하기 昌

닫기 X

“미술학도 알바하며 버텨야?”

청년작가토론회, 인맥·학맥 얽히고 열정 없는 현실 비판

이광재 jajuy@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07-13



▲ 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현대미술관에서선 광주지역 청년 작가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가 본 광주미술을 말하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그들 눈에 비친 문화수도 광주의 미술계는 어두웠다. 작품보다는 인맥과 학맥이 중요한 지역 미술계의 보수적 태도, 작품성과 상품성 사이의 고뇌는 광주의 청년 미술학도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었다.

지난 11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참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었다.

미술관측이 광주지역 4개 대학 및 대학원 미술학도 20여명의 초대작품전에 이어, '우리가 본 광주미술을 말하다'는 주제로 마련 한 토론회였다.

광주 미술계를 정조준한 대학 연합토론 자체로도 관심이었지만, 토론회에서 쏟아진 '속엿 말'들은 광주 미술계가 새겨볼 얘기들이었다.

조선대 대학원생 정강임 씨는 작가로서 느끼는 가장 큰 벽을 '미술 관계자들에게 나를 알리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포트폴리오를 들고 서울의 갤러리들을 찾아다녔는데, 제 성장과정을 묻는 거예요. 집 형편은 괜찮냐구요. 작품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우선 보는 거죠.”

지역대학 출신에다 재력도 뒷받침 안된다면 좋은 작품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선입견'은 미술계의 현실이

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참석자는 “교수님이나 선배들은 늘 ‘그림이 좋으면 뜯다’고 하지만 그림만 좋아서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누군가 연결해줘야 하는데 선배나 학교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고 했다.

광주대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는 함은지 씨는 “광주 예술 1번지라는 동구 예술의 거리를 가봐도 사진전은 기껏해야 한 달에 한번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 작품의 위치를 찾는다는 게 힘들다”고 했다.

지역 미술계에 대한 지원부족으로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광주·전남에서 미술계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문예진흥기금이나 시립미술관 대관 지원 정도가 전부”라며 “학교에서도 순수미술보다는 디자인이나 IT쪽 지원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대학 미술교육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화를 전공한다는 한 참석자는 “학교에선 늘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 하지만 조금 특이하게 그리면 ‘너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제재를 가한다”며 “이런 태도가 작업에 대한 열정을 떨어뜨린다”고 털어냈다.

개인전 경험도 있다는 한 대학원생도 “광주에선 비엔날레라고 하는 국제적 미술행사를 여는데, 지역 대학에선 여전히 기본기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인과 생활인 사이의 고민은 이들에게 가장 큰 현실의 벽이자 미래의 불안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좋은 아이템이 있다해도 돈이 없다. 결국 덜 좋은 재료를 쓰거나 후원자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의 미술품 시장은 극히 일부 작가들에게만 열려있다. 선배들은 후배들 돌아볼 여력이 없다. 함께 뭔가를 해보려는 열정이 광주엔 없다.”

토론은 결국 한 참석자가 제안한 ‘선택’으로 마무리됐다.

“아예 컬렉터나 평론가 입맛에 맞춰 잘 팔리는 작품을 만드는 ‘현실적’이 되거나, 자신이 하고픈 작업에만 ‘미치기’. 그도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도 ‘버티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선택은 3중 하나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http://www.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쇄하기 ㅊ

닫기 ✕

copyright (c) gjdream.com korea corp, all rights reserved